

## 삶의 위태로움을 기도 하도록 지도하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도지도

김 욱 성공회대 일반대학원 신학과 박사과정

### 1. 들어가면서: 삶의 위태로움 precarious life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타인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의 번덕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 두려움과 슬픔을 자아낸다. 그런데 취약성과 상실의 경험이 과연 군사적 폭력과 보복으로 직결되어야 하는지는 그만큼 확실하지는 않다. 다른 길이 있다는 말이다. 폭력의 순환을 멈추고 덜 폭력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관심이 있다면 전쟁을 부르는 외침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슬픔이 이해될 수 있는지 묻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다.

- 『위태로운 삶』, 주디스 버틀러

전쟁도 아닌데, 모든 국가의 정상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두고 하는 표현 중 하나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 네 자리수 2000여 명 안팎의 일일확진자수를 두 달 가까이 기록하고 있고, 누적 사망자수가 2300명을 넘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10명 중 8명은 2021년 추석에 집에 있겠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7%가 1박 이상 집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복지강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수가 1만 명을 넘었고, 영국은 일일 확진자수가 28000명 선이다. 미국은 사망자수가 65만 명을 넘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삶의 위태로움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과 내가 가장 가까운 이들과 이웃에게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죽음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어 먼 어떤 것으로 느끼게 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눈에 띄지않게 한 뒤, 손쉽게 재빠르게 처리하는 의료와 장례산업의 소비자로 길들여진, 그래서 소비사회의 첨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의 비극성을 직면하도록 상기시키는 면이 있다. 그것도 예상가능하고, 통제가능하며, 적절한 치료와 이별의 과정이 예상되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죽음이 아니라 갑작스레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당혹스러운 이유로, 가족들의 참여가 일체 박탈된 법정전염병 사망자의 시신처리규정에 의한 폭력적인 형태의 장례가 수반되는 비극적 죽음이다. 인간생명의 취약성과 매일 살아가는 삶의 위태로움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극단적으로 증폭되어 제시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실 삶의 위태로움을 드러내는 요인은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만은 아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덧 9.11 테러사건이 이틀전 20주기를 맞았다는 미국발 소식을 듣는다. 20주년에 이른 9.11 테러사건과 이어진 탈레반과 이슬람국가IS의 출현, 미국이 주도한 보복전쟁들의 어정쩡한 결말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중인 2021년 지난달에 이루어졌다. 위에서 인용한 주디스 버틀러의 책 『위태로운 삶』은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보여주고 벌여온 일련의 반응들에 대한 버틀러의 응답으로 쓰여진 것이다.

우리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는 결코 아니지만, 이러한 비관주의를 나는 이해한다. 기후변화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이 있고, 권력과 부와 기술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새롭게 부상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무용하게 만들려 하고, 적을 불사르고 침수하고 위대한 문명 유산을 파괴하는 야만적 테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과 같은 위협들은 많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볼프, 19).

카불 공항에 밀려든 수 만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절박함 앞에서는 할 말을 잊게 된다. 외국공관과 국제기구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이대로 남겨지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원리주의세력인 탈레반 통치하에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 자기들은 못 나가더라도 아기들만은 국외로 내보내달라고 보자기에 싸인 유아들을 미국군인들에게 던지는 아프가니스탄인 부모들의 비극적 참상은 삶의 위태로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여러 모로 2021년은 삶의 위태로움이란 주제를 마주하게 하는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 같다. 미국이 주도한 보복전쟁들에 어정쩡하게 들러리설 수밖에 없었던 처지의 한국정부가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라는 신분으로 한국공관과 한국국제기구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탈출시킨 미라클 작전의 성공에서 “국뽕을 충전”하기에는 국내외 이웃들의 얼굴에 담긴 삶의 위태로움이 참으로 엄중하다. 현지에 남겨졌다는 비간접고용 한국협력자 아프가니스탄인들이 60여 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불어 제주도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로 지내고 있는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은 어떻게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인가? 그들의 얼굴에 담긴 삶의 위태로움 혹은 불안정함, 그들에게 쏟아지는 공격성과 폭력의 뒤에 있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20년 전 9.11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미국에 불어닥친 “갓 블레스 아메리카” 열풍과 보복과 응징, 혐오와 공격성의 홍수를 기억한다. 그리고 아들 부시의 충격과 공포 작전이 이라크에 퍼부어졌고, 20년 뒤 길게 끌려오던 전쟁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일단락되었다. 20년 전 워싱턴의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열린 국가적 추모예식에서 한 성공회 여성목회자만이 미국대통령 앞에서 보복과 대응으로서의 폭력은 복음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신학대학원 교수신부가 전해주던 기억이 남아있다. 삶의 위태로움 혹은 삶의 불안정함을 경험하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토하게 할 것이고, 그 경험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동반할 수 있을지가 그리스도교 신학에 주어진 오늘날의 한 과업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개역개정성경 시편 62:8)

특히 시대의 어려움과 어두움이 고조되는 시점에 교회는 기도를 안내하고 지도할 목회적 과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이 글에서의 기도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하고, 전달하는 일방적이고, 인간중심적 의미에서의 정보전달이라는 의미보다,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전통의

예배정의를 따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라는 쌍방적이고, 체험적인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글에서의 기도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의해 선행적으로 주도되는 신주도적인 체험이다. 또한 이와 같은 기도의 정의가 갖는 함의의 연장으로서 기도란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동과 사건이라기보다 공적이고 공동체적 사건과 체험, 활동으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공동예배가 일차적인 기도로 포함된다. 물론 개인적이고 사적인 시공간에서의 기도와 하나님체험 또한 기도에 포함된다. 공적 기도와 사적 기도가 모두 포함되는 의미에서 기도를 논의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성공회가 자신들의 예배와 예식서를 “공동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 BCP라고 명명해오고 있음에 담긴 신학적 의도를 참고했으면 한다. 미국 장로교회PCUSA는 비슷한 성격의 교단예배서에 대하여 “공동예배서”the Book of Common Worship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공동예배가 가진 기도로서의 속성, 기도에서의 신주도성, 체험적이고 쌍방적인 측면을 지니는 기도의 차원을 이 글에서는 전제해 두고자 한다. 그리스도교 신학전통에서 기도지도의 기술은 전통적으로 영성신학에서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라는 주제로 중요하게 논의되어온 분야에 속한다. 영성신학에서 기도지도를 언급할 때, 지도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대응되는 영어원어가 가이드가 아니라 디렉션이라는 점에 주목했으면 한다.

## 2. 평화의 기도

전염병의 팬데믹같은 상황에서 드러나는 삶의 취약성과 위태로움이 인간의 영혼과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 심지어 광적인 조급함과 공포를 낳고, 이것이 분별력의 상실, 공격성과 폭력의 가능성을 낳을 수 있음을 묵회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 속에서 교회는 묵시문학적 비관주의와 열광주의에 편승해, 팬데믹의 원인을 주변의 소수자, 약자에게 돌리고 그들의 악마화하거나 팬데믹을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등의 행동양태를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팬데믹의 해법으로 밀도 끝도 없는 회개축구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의 코로나19 관련 저술이 일으킨 논란을 들 수 있겠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에서 다음과 같은 그의 주장을 담았다. “동성애적 관계는 죄이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치에 맞추어 살라는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이다.” 이 책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평택의 미군기지 한국계 미국인 군목이 다른 군목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통해 논란이 되었다. 교회가 팬데믹과 같이 삶의 위태로움이 드러나는 시기에 팬데믹의 원인을 특정 대상에서 돌리는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22명의 미군 군목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신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1623년 성공회 시인사제 존 던이 흑사병 진단을 받고, 죽어가는 병상에서 『인간은 섬이 아니다: 병의 단계마다 드리는 기도』를 저술하던 당시의 상황을 필립 안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존 던의 병명은 임파선종 페스트가 아니라 발진 티푸스였음이 나중에 드러났고, 영문학사상 위대한 시인인 존 던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가 팬데믹의 시기에 남긴 이 기도와 묵상책은

고전으로 남았다.

존 던이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인 세인트폴대성당의 수석사제로 지내는 동안, 팬데믹의 물결이 런던을 세 번이나 휩쓸었다. 마지막 팬데믹 때만해도 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역병으로 런던 인구의 1/3이 죽었고, 1/3은 지방으로 이주해 런던은 유명도시가 되었다. 도로에는 풀이 무성했다. 더러운 옷을 걸친 예언자들이 반쯤 미친 채로 인적없는 거리를 활보하며 심판을 부르짖었고, 도시에 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런던의 죄를 물으시려고 천벌로 역병을 보내셨다고 믿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런던 사람들은 존 던 사제에게 물려가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설명을, 하다 못해 위로의 말이라도 듣고자 했다(얀시, 33).

얀시는 팬데믹의 원인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이들을 죄인시 혹은 악마화하는 행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탄식어린 제안을 한다. “가끔은 목사들 및 기타 기독교 대변인들이 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하는 기독교 버전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얀시, 267).”

존 파이프의 코로나19 팬데믹 해석이 교회 안팎으로 일으킨 논란에서 보이듯,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혐오성향과 공격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교회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팬데믹의 시기에 교회가 혐오 대신 평화를 기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에서 오는 평화 안에 머무는 법을 수련하는 기도를 배우고, 평화 안에서 사회와 역사를 만나는 법을 수행하는 기도지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교회가 혐오에서 나오는 주변세계의 적대화와 공격성, 그리고 배제와 폭력이라는 흐름에 대해서 평화에서 나오는 관용과 포용, 베풀고 용서를 교회의 성품으로 성품화하고, 교회를 특징짓는 덕으로 삼는 것의 실천적 수련의 장으로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야 함을 뜻한다. 이것은 사회적 실천과 내면적 수행 사이를 이항대립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배치시키지 않고, 통합시키는 정치사회적-신비영성적 영성 형성을 연구하라는 과제를 교회가 수행해야 함을 함의한다.

재침례파 메노파 교회사학자 앨런 크라이더는 신약성경 이후 초기 교회의 방대한 기록들에서 복음전도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럼에도 이 시기에 교회가 가장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한다. 크라이더의 결론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성품화한 결과로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로 이끌려 들어왔으며, 이와 같은 성품화는 교회 밖으로는 알리지도, 공개하지도 않았던 초기 교회의 예배와 성례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초기 교회의 예배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크라이더는 평화의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평화를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적 아비투스로서 형성되게 했다고 말한다(크라이더b, 365). 이것은 공적 기도로서의 공동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안에 평화가 중심적인 위치로 형성되도록 예배내용과 구조의 평화지향성에 대한 검토와 재형성 등의 성찰과 강조의 필요성을 재기해주는 대목이다. 크라이더는 다음과 같은 교부 키프리아누스의 문장을 언급한다.

먼저 주교들이 마태복음 23-24을 상기시키면서 평화의 인사를 시작해야 했다. “주교들이여, 그러므로 당신들이 교회에 서서 기도할 때 집사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여전히 이웃에 대한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외치게 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들의 기도와 봉헌이 용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만약 그들 중에 서로 소송이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설득해 서로 화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크라이더b, 364).”

크라이더는 초기 교회의 예배 가운데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신약성경으로부터 연유하는 순서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한다. “시리아, 예루살렘, 소아시아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테르툴리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의 북아프리카에서처럼 평화의 몸짓이 신자들 사이의 화해를 이루고 타당한 성찬 예식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크라이더b, 365).” 크라이더는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예배의 순서의 영향을 이렇게 논평한다. “많은 지역에서 그 인사에는 평화의 입맞춤이 포함되었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크라이더b, 365).”

공동예배라는 공적 기도 안에서 시행된 전례적 동작으로서의 평화의 입맞춤은 몸으로 드리는 기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예배행동이 시행된 시공간이 공동예배라는 점에서 그렇다.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전례적 행동이 담지하고 있는 내용은 “상호겸손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공통의 형제사랑adelphotes을 실천하다는 확신의 표현”이었다고 크라이더는 말한다(크라이더c, 51). 더욱이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전례적 행동에는 평화와 불간분의 관계를 지닌 채로 서로를 묶어줌과 그리스도 안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었다(크라이더c, 51).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전례적 행동은 사회적으로는 혁명적인 사회적 결속과 근본적인 평등에 관한 표현이었다(크라이더c, 73). 그리고 공적 기도를 통해 형성된 평화와 평등, 연대의 아비투스는 교회의 경계를 넘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사회적 자비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역사학자들은 지적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출현 이래 로마제국을 강타한 두 차례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교회의 팽창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팬데믹은 초기 교회에게는 도약대였다. 이 점을 다음절에서 참여의 기도를 논하면서 다루어 보겠다.

초기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평화의 입맞춤을 통해 평화의 기도를 하면서 이와 같은 정체성을 표현했음을 지적하면서 나는 평화의 진행절차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낀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향유하고 있었던 평화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서 도출되는 것이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관념이 아닌 실재로 예배 안에서 경험하게 하였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를 그리스도인 회중 서로에게 분유하였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회중 서로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는 사회를 향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자비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 교회내적으로는 재산권과 기득권을 놓고, 교회분규가 일어나 한 교회당에서 갈라진 회중이 각각 예배를 하고, 용역을 동원한 폭력사태를 서로에게 자행하여, 언론에 보도되며, 교회법이나 교단법이 무력화되어, 사회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한국교회의 세태를 두고, 우리가 초기 교회의 후예라고 여겨질 수 있을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교인들과 사회의 삶과는 별 연관이 없는 주제로 벌어지는 쉰한 신학논쟁들과 심지어 교회정치의 수단으로 전략한 이단판정과 이단시비가 과다하다는 성찰도 필요할 것이다. 논쟁과 시비로 점철된 교회를 평화의 공동체라고 여길 사람이 있을까 싶다. 교회외적으로는 가족의 형태와 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법률제정,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혐오, 불이익의 방지와 관련된 법률 제정의 찬반논쟁에서 평화가 아닌 혐오와 폭력의 표현이 교회의 행동자세로 특징되는 것이 평화의 공동체로서 교회 정체성과 부합하는지 성찰하는 지혜의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평화의 기도를 하도록 기도지도를 강조해야 할 목회적이고, 기독교교육적인 여러 요인을 경험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요인 중 하나라고 하겠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와 기독교교육기관은 삶의 위태로움을 평화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처럼 혼란과 좌절, 분노가 조장되기 쉬운 팬데믹과 같은 압도적인 사회위기에서는 사람들의 적의와 공격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디지털과 IT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통신기술의 발달은 서로간을 초연결시키면서도, 아바타와 아이디 뒤에 숨어 익명성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과 초연결성의 결합은 손쉽게 악의에 접촉, 감염되게 하고, '인터넷 멍석말이'라는 형태의 폭력성이라는 유혹에 사람들을 노출되게 한다. 사회적으로는 공손하고, 예의바르고 친절한 인간이 사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에 힘입어 잘못 이해된 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삼아 막말을 퍼붓는 폭력의 가해자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임명묵은 2030세대 소위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로 "인터넷 멍석말이"라는 사이버상의 공격성을 지적한다.

나는 여러 이유로 교회의 관행에서 일찌감치 삭제된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물리적 행위를 복권하자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무차별적인 입맞춤의 전례적 행위는 물의를 빚는 오용과 쉽게 연결되었고, 결과적으로 평화의 입맞춤의 폐지로 이어졌음을 초기 교회기록은 말한다. 특별히 성리학적 유산이 낳은 유교적 예절이 아직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더군다나 팬데믹의 파고가 연이어 도래할 것이 예상되는 이 시기에 평화의 입맞춤은 예전적으로 잘 변주되고, 조율되어야 한다. 다만 평화를 조성하고, 화해를 이루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요점을 예배 안에 재정착시킬 필요를 말하고자 한다. 공적이고 사적인 기도 양면에 있어서 평화에 대한 지향을 고정적 상수와 핵심적 요소로 복권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를 통해 분명한 실존으로 경험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는 기도와 영성, 예배와 전례생활에서 매우 중심적인 현실이었음을 상기하고자한다. 그 결과 평화라는 일차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기도를 통해 내면화되고, 덕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발현되는 삶의 실천은 보복과 응징, 침략과 약탈, 학대와 복속이라는 힘의 질서로 특징지워지는 당대 제국의 문화, 삶의 방식에 대조/대안적 증언으로 작용하게 됨을 초기 교회의 기록들과 그리스도교 반대자들의 기록들 양자가 말하고 있다.

삶의 위태로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부각되는 팬데믹의 시기에는 다른 문명의 역작용적 요인들과 더불어 팬데믹의 현행질서status quo의 허접함이 드러난다. 스스로를 문명으로 자부해 온 강대국

의 질서, 제국의 질서가 사람들의 삶을 유효하게 부조해오지 못했음이 폭로되고,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믿어온 관계의 방식들이 무력함을 고백하게 된다. 취약함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공격성과 무정함을 정당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팬데믹의 시기, 교회의 기도지도가 평화에 강조점을 두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것에 의한 성품화와 내면화가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성이 이 대목에서 커진다고 하겠다.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해체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 혼란을 줄이고, 이 흔들림이 새로운 긍정적인 가치와 목표와 생활방식을 도출하는 기반이 되도록 할 때, 평화의 자세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리라고 예측한다. 특별히 소비주의라는 이상승배가 만연해 온 소비문화에 대한 대안적 생활양식 모색에는 소비와 소유, 효율과 성취가 주는 자아승배가 아닌 은혜와 선물, 호의와 관대함에서 오는 평화가 대안적인 영혼의 핵으로 위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명의 취약함이 폭로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화에 자신을 개방하도록 하는 기도지도가 중요해진다. 팍스 로마나의 이데올로기가 무력함을 드러낼 때, 팍스 크리스티의 복음이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출했음을 기억할 때, 평화에 초점 맞춘 기도지도가 갖는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중요성은 커진다. 초기 교회를 비현실적으로 이상화하지 않고, 그 복잡성을 고려할지라도 초기 교회가 평화의 기도를 드리는 이들로써 뚜렷한 평화의 생활양식으로 특징지어졌다는 사실에는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순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귀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새번역성경 고후 13:11~13).

나는 가톨릭교회의 현행예배 전례문인 로마미사경본 제2양식 통상문 안에서 평화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어디서 등장하는가를 따라가볼 때가 있다. 초기 교회의 평화에 대한 강조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의 예전개혁과정을 거쳐 화석과 같이 가톨릭교회의 예배통상문 안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로마미사경본에서는 시작예식 순서에서 인사 부분의 여러 양식 중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혹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시작예식 순서 중 대영광송의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성찬전례 순서에서 평화예식 부분과 하느님의 어린양 부분에서 평화가 언급된다. 공동예배의 첫 인사에서 평화를 기원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예배가 본질적으로 평화의 전례임을 드러내준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평화를 중점적으로 비는 평화예식 부분은 다음과 같다.

126. 그다음에 사제는 팔을 벌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기도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사제는 손을 모은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교우들은 응답한다.

◎아멘.

127. 사제는 교우들을 향하여 팔을 벌렸다 모으면서 말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교우들은 응답한다.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28. 이어서 경우에 따라 부제나 사제는 말한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모든 이는 가벼운 절을 하며 서로 평화와 친교와 사랑의 인사를 나눈다. 사제는 부제나 봉사자에게 평화의 인사를 한다.

◎평화를 빕니다.

가톨릭교회의 전례문은 성찬의 제정과 성찬의 분배 사이에 평화예식을 위치시킴으로써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초기 교회의 의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예식 뒤에 이어지는 하느님의 어린양 부분에서도 평화는 기도된다. 평화를 비는 것은 삶의 위태로움과 불안함이 드러날 때 절실해진다. 삶의 위태로움을 기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도의 형태는 평화를 청원하는 것이다. 로마미사경본 제2양식의 하느님의 어린양 부분은 다음과 같다.

130.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부분에서 보이듯 평화를 비는 기도와 짝을 이루는 청원기도는 자비 혹은 사랑과



은혜를 청하는 기도이다. 자비를 청하는 기도는 평화를 자아낸다. 로마미사경본에서는 회중이 주님의 기도로 기도한 뒤이어 사제가 또 한 차례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125. 사제를 팔을 벌린 채 혼자서 계속하여 기도한다.

+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이하 생략)

대한성공회의 경우에는 우선 성무일과 중 매일의 저녁에 평화를 위한 기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대한성공회, 166). 그리고 감사성찬례라고 명명된 성찬례가 포함된 매 주일의 공동예배에서 평화의 인사 순서가 장중한 개식사와 더불어 강조되어 있다(대한성공회, 246). 시작 예식 부분의 기원성가 중 (대)영광송 부분에서 평화가 언급되는 점은 가톨릭교회의 전례문과 같지만, 가톨릭교회가 성찬제정과 성찬분배 사이에 평화예식을 위치시키는 것과 달리, 한국 성공회교회는 성찬의 전례 가장 앞부분에 성찬예물이 준비되기도 전에 평화의 인사를 위치시킨다. 『성공회 기도서』의 평일 성무일과 저녁기도 중 평화를 위한 기도와 감사성찬례의 평화의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 평화를 위한 기도

+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비오니,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 아멘

#### 13. 평화의 인사

집전자는 아래의 인사서문이나 절기에 맞는 다른 서문을 선택할 수 있다.

+ 여러분은 다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또한 대한성공회의 감사성찬례에서는 설교와 신앙고백 뒤에 이어지는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순서가 3가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순서에서도 평화가 강조되어 기도된다(대한성공회, 245).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1양식) 또는 “창조의 하느님, 우리와 모든 사람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2양식) 또는 “이 지상에 정의와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3양식)

크라이더는 초기 교회의 성찬례는 열렬한 기도, 평화의 입맞춤, 그리고 성찬의 3요소로 구성되었

다고 말한다(크라이더a, 89).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입맞춤이 없는 기도와 성찬례는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믿었다(크라이더c, 74). 성찬례를 준비하는 열렬한 기도의 마무리로서 입맞춤이 이루어졌고, 예배 가운데서 사회의 계급을 초월한 모든 이들이 입맞춤은 로마사회의 계급적 문화에 충격을 주었고, 입맞춤을 통해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지적한다(크라이더a, 92). 심지어 페르페투아 순교성녀의 성인전에 기록된 대로 경기장에서의 처형장면에서도 예배 때 하던 대로 죽어가면서도 서로에게 계급을 초월한 입맞춤으로 군중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평화의 입맞춤 대목에서 엿볼 수 있는 평화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면모와 이것이 지닌 증언의 중량감은 제국을 지배하던 지배와 폭력의 질서와 문화와는 대조가 되는 것이었다. “서로 평화롭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순복하게 하여서 교회 안으로 데려와 교회에 가득차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사도전승, 2.56)

삶의 위태로움이 드러나고, 우리 삶에서 불안정성이 증폭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가 될 가능성과 피해가 될 가능성이 교직될 때, 평화를 청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삶의 위태로움을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평화를 청하는 기도는 자비와 사랑을 청하는 기도와 자연스레 얽혀서 평화를 자아낸다. 그리고 팬데믹 시기에는 치유를 청하는 기도와 함께 평화를 청하는 기도가 가장 절박한 기도를 구성하게 된다. 사적인 기도의 모범이 되는 공적인 기도로서의 공동예배에서 팬데믹 시기에 평화를 기도하는 것을 강조, 의례화시키는 것을 비전례적 예배를 채택하는 전통에서도 고려해볼만 하지 않을까 한다. 교역자의 자의적 취향에 따라 예배의 주제나 강조점이 구성될 여지가 큰 비전례적 예배에 있어 평화 혹은 평화를 기도하는 강조하는 초기 교회 이래의 그리스도교 예배의 특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자리에 번영을 비는 기복적 강조와 자기중심적 표현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예배의 타락, 오용,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교회의 재산과 기득권과 관련된 교회내 분쟁이 물리적 다툼으로 번진 모습이나 극우적 정치성향을 보이는 설교자들의 거친 언사들이 설교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광경이 언론을 통해 중계보도되는 상황에 이르면 교회는 평화를 기도하는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라는 자기주장을 하기 민망한 지경에 이른다. 삶의 위태로움을 경험하는 시대에 목회적 도움, 종교적 기능을 기대받기 어려워지는 신뢰성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기 쉽다.

### 3. 참여의 기도

크라이더는 다음과 같은 초기 교회 변증가 유스티노스의 말을 인용한다(크라이더a, 72). “서로를 미워하며 죽이며 전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부족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후에 함께 살며 적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제1변증 14).” 팬데믹의 시기에 나쁜 정치는 희생양을 찾고, 사람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동력화하고, 책임을 전가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초기에 ‘우한武漢’이라는 특정 지명을 병명으로 삼길 고집하고,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제한을 강변하던 혐오세력들이 서구형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고, 세계최악의 감염상황을 보여주던 미국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례를 생각해 본다. 앞서 언급한 미국 북음주의 진영의 유명

설교가가 성소수자를 팬데믹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사례와 닮아 있다. 유스티노스의 언급이 주는 의미는 초기 교회가 이와 같은 희생양 찾거나 주변부의 적대화라는 지배적 문화에 동조하지 않는 선택을 했음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살고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변의 민족과 국가들을 적으로 상정하는 일은 낯설지 않다. 원래 개와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사방 100리의 작은 권역을 의미하던 중국中國이라는 개념이 제국으로 팽창하면서, 화이華夷라는 사상이 출현했다.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주변의 소수 민족들을 오랑개로 구분하는 자세를 말한다. 중화와 이적夷狄이라는 구도 속에서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동이東夷라는 범주중 한 구성원으로 규정당했다. 동이족은 춘추전국시대 이전부터 중화민족이라고 불리는 혈연집단의 뿌리가 되는 화하족華夏族들에게 그들의 패권중심적인 패도정치에 대하여 예의와 도덕의 높은 문화 수준 때문에 동경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사상 앞에서는 동이 역시 이적의 하나일 뿐이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이적으로 분류된 종족집단들에 대한 교화와 정벌로써 덕화라는 명목의 동화와 한족화가 정당화되었다. 주변인들, 소수자들, 이민족에 대한 적대시는 제국의 질서, 힘의 논리, 패권경쟁에서 상습적으로 등장하는 이데올로기이다.

확장과 지배, 자기확대와 탐욕을 자연스레 정당화하는 이와 같은 논리나 사고방식, 인식방법은 레비나스의 사유를 빌리면 '지배를 지향하는 자기중심적 특성'을 갖는다(문성원, 26). 코로나19 팬데믹의 와중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지를 놓고, 다분히 세계체제적 경쟁구도를 반영한 미중의 대립과 갈등이 두드러졌다. 포스트 코로나나 위드 코로나라는 이후의 코로나19 팬데믹 진행과정에서도 초강대국들의 지배를 지향하는 자기중심성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주변국가들의 출세우기와 상대를 향한 악마화라는 제국의 논리가 한반도에서도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 같은 제국의 논리가 첨예화되어 충돌하는 시공간에서 이루어질 기도지도에 대해서는 다음절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지도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순교자 유스티노스의 자신에 찬 자기증언은 바로 이와 같은 주변부에 대한 적화와 차별을 초기 교회가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을 차별화했고,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을 “제3 인류”로 규정하게 했음을 보여준다. 중앙과 주변, 아군과 적군이라는 제국질서의 구별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류사회라는 자기정체성을 내면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초기 교회의 자기신원은 “거류민”의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민중으로 새로 태어나고, 새로 빛어졌다는 삼위일체적 재창조라는 초기 교회의 종말론과 이어져 있다.

이 대목에서 호주와 캐나다, 미국과 아프리카의 거의 전체 국가들의 식민화과정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잔인한 강제동화의 주범으로 교회가 학살자의 위치에 섰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2021년 한 해 동안 가톨릭교회와 장로교회가 주축이 되었던 캐나다의 원주민아동 강제동화교육시설에서의 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의 대규모 묘지가 발견되면서, 국가적 분노가 폭발했다. 40군데 이상의 캐나다 가톨릭교회에 대한 방화가 일어나고 있고, 트뤼도 총리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아일랜드 가톨릭교회가 운영한 미혼모자녀 수용시설과 관련된 대규모 유아모지들도 발견되어 학대에 기인한 결과로 추정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교회의 학대와 학살, 종교재판의 역사는 오랜 연원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평등법 제정반대라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죄악사는 삶의 위태로움과 그 위태로움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잘못된 방향으로의 참여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러나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이 당면한 팬데믹적 상황에서 보여준 참여의 방향은 이와 같은 학대와 억압, 적대와 혐오와는 거리가 한참 있었음을 그리스도교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학자들도 기꺼이 인정하고 있음을 본다. 이 글에서는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와 역사학자 톰 홀랜드의 관련 연구들을 보려고 한다.

로드니 스타크는 165년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기에 15년 동안 제국인구의 1/4에서 1/3이 사망한 팬데믹이 있었고, 다시 251년에 비슷한 파괴력을 가진 팬데믹이 제국을 강타한 사실을 지적한다(스타크a, 116). 전자는 천연두, 후자는 홍역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스타크는 교회역사가들이 이와 같은 로마제국의 인구재앙과 그리스도교의 발흥을 연결하여 보지 않아온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말한다(스타크a, 117).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팬데믹에 대한 대처는 “모든 사람을 돌본다”였다. 스타크는 이교도와 그리스도인들은 팬데믹을 두고 상반된 자세를 보였으며, 그 결과 “실제로 기독교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엄청난 인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스타크a, 139). 로드니 스타크는 이교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상반된 대응법의 원인을 그리스도교의 신론에서 찾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교도의 신앙에서는 낯선 것이었다. 신이라는 존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랫동안 가르쳤던 것처럼 사랑을 받아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교도가 마찬가지로 낯설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발상이었다. 실제로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인간은 ‘서로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했다. 아울러 이런 책임은 가족과 부족의 유대를 넘어 실상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고전 1:2)에게 확장되어야 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생각이었다(스타크, 135).

스타크의 분석과 일맥상통하게 크라이더 또한 역사학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한다. “이교도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실질적인 전통이나 신학적 이해도 없었고 공동체의 훈련이나 실제적인 의식도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크라이더c, 55).” 로드니 스타크는 당대의 이교 철학자들이 공황이나 동정에 대하여 품었던 관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와 같은 이교철학과 그리스도교 신앙 사이의 대조는 평상시의 빈민부조와 팬데믹 상황에서의 구호활동에서 그리스도교의 부각을 가져왔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동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의 곤궁과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이와 대조적으로 이교 세계에서, 특히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공황을 “성격적

결함"으로, 동정을 "병적 감정"으로 간주했다. 왜냐하면 긍휼이란 무상의 도움이나 구호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지의 설명에 따르면, 그리스 철학자들은 "긍휼이란 이성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반드시 "충동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과 받을 자격도 없는 자가 긍휼을 간청할 때 철저히 "외면할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 저지는 계속해서 "동정은 현자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성격적 결함이므로 아직 미성숙한 자들에게만 용납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한다(스타크b, 170).

로마제국을 초토화시키던 팬데믹 상황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한 희생적 구호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하던 일들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일 뿐이었다고 로드트 스타크는 말한다(스타크b, 54)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적 사랑의 실천은 극적으로 팬데믹의 사망률을 2/3까지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산된다(스타크, 178).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환자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타크는 알렉사드리아의 감독 디오니시오스의 말을 인용한다.

역병이 처음 발발했을 때, 이교도들은 환자들을 내쳐버렸고, 가족들에게서도 피신하였다. 아직 죽지도 않은 환자들을 도로에 내다버렸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들을 오물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끔찍한 질병의 확산과 감염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했지만, 별 짓을 다해도 역병을 피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깨닫게 되었다(스타크b, 174).

스타크의 분석은 그리스도교의 신론이 당시의 지배적 철학-종교이 제시하던 무정념성-비정감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동의 제1동인으로서의 신론이 줄 수 없는 압도적인 윤리적 강령과 과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했고, 여기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인의 희생적 돌봄이 그리스도인들의 팬데믹 사망률을 이교인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게 했고, 팬데믹으로 강타된 출산률에서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월등히 높아지게 해서 결과적으로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내가 스타크의 분석에 대해 덧붙이고자하는 점은 사회학자로서의 스타크가 파악하지 못하는 참여로서의 지식, 사랑을 통한 앎이라는 그리스도교 영성신학의 중심적 주제가 이와 같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적 사랑 아래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란 파악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대상이며, 이 신앙적 자세의 귀결로써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사랑을 통한 참여의 대상으로서 체험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 지점에서 초기 교회가 자신의 초기 역사에서 팬데믹에 대응한 역사적 방식에서 참여의 기도를 오늘날 지도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 초기 교회의 테올로기아 즉 신학은 학습이 아니라 수행이었으며, 체험적인 것을 기본으로 이론이 이어지는 구조였음도 이와 같은 성찰에 힘을 보태준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부어스마, 67). 참여라는 주제는 연합이라는 유사한 개념과 더불어 고대인들의 책임기, 학습, 신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며,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해와 기도생활에서도 중심적인 개념이라고 하겠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참여는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을 통해 참여하는 것의 결과였다. 역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사랑의 가능성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실천, 사회적 참여였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라는 구원이 무상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믿음에서 흘러나온 열매였다. 스타크는 다음과 같은 테르톨리아누스의 말을 인용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무 것도 사고 팔 수 없다(스타크b, 172).” 선물이라는 사상에 주목하는 신학은 급진정통주의에서 공공신학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위치되고, 개혁파 신학자 토드 빌링스는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도 선물과 참여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김승환, 187.; 빌링스, 266.; 부어스마, 148).

스타크는 팬데믹을 통과했던 초기 교회의 희생적 부조와 돌봄이 그리스도인들의 생존률과 출산률을 이교인들에 비해 극적으로 높였으며, 여기에 이어 여자아이에 대한 영아살해가 보편화되어 있던 로마제국의 문화에 대해 영아살해를 엄금하는 초기 교회의 엄격한 규범이라는 요인이 더해졌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해마다 40%씩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는 초기 교회의 팽창은 교회내적 성장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실천에 감동받은 이교인들의 대량개종에 의한 것이기도 함을 스타크는 강조한다.

툼 홀랜드는 한센병 환자나 노예와 같은 로마제국 당시의 비참한 이들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관념을 카파도키아의 수도 카이사레아의 감독 바실레오스의 말을 들어 지적한다. 카이사레아의 바실레오스는 삼위일체론의 정립에서 유명한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 중 한 명으로, 동생인 그레고리오스와 자비의 여성수도자인 누나 마크레나와 한 가족이었다. 카이사레아의 바실레오스의 시대는 로마제국을 다시 그리스도교에서 이교로 돌리기려고 노력한 배교자 황제 율리아누스의 치세였다. 로마제국의 재이교화라는 율리아누스 황제의 정책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초기 교회의 강조점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냈다(홀랜드, 195).

“비참한 사람들을 경멸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레고리우스는 촉구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당신은 그들의 위엄을 이해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 구세주의 몸을 그들 자신이 입은 것이다. 왜냐하면 동정심 깊은 구세주는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철학자들은 냄새나고 막노동을 하는 대중에게 위엄같은 것은 없다고 가르쳤으나, 그레고리우스는 모든 사람에게 위엄이 있다고 보았다.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경멸당하고 취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느님의 모습을 취하여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이다. 내쫓긴 사람과 버려진 사람을 돌보신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 또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요구했다(홀랜드, 198).

툼 홀랜드는 취약하고, 비참하고, 유기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알아보게 하는 연합과 참여의 사회적 실현으로 이어져 로마제국의 구질서가 개혁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한센병 환자들이 위엄을 갖춘 존재로 대접받고, 노예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이 세계에는 기존의 전통적 사회 질서를 뒤엎는 또 다른 개혁이 예비되어 있었다(홀랜드, 201).” 이와 같은 구질서의 개혁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약자와 소수자들, 변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동일시하게 되는 연합과 참여라는 그리스도교의 구원체험과 구원교리가 전제되어 있다. 교회가 팬데믹 상황에서 참여의 기도를 지도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이 지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참여하는 삼위일체에의 참여를 경험하는 참여의 기도가 사회적 실천과 사회개혁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교의 독특한 사회변혁론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사실상 앞절에서 논의한 평화의 기도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참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참여에 의한 사회적 실천으로의 확대는 칼빙의 신학에서 나타나는 교부신학과의 연결성과 화음을 이루면서 등장함을 빌링스는 지적한다. 개혁파 신학전통의 강한 사회적 가르침에는 이와 같이 구원론적 참여의 언어가 전제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서의 참여란 실제적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윤리적 모방으로서의 참여와 다름을 빌링스는 지적한다(빌링스, 89). 참여는 하나님체험으로서 기도의 영역에 속한다.

교회 자체는 성령에 의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며, 지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직무를 선택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칼뱅에게 참여는 더 넓은 사회로 확대되는 이웃사랑도 포함한다. 이 사랑은 형평과 정의에 관한 관심으로도 표현되고, 가능할 경우 시민질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려는 종말론적 지향성으로도 표현된다(빌링스, 266).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지구적, 전인류적 재난과 위기, 대규모 사망의 시기에 교회와 기독교 교육기관, 기독교인 가정은 참여로서의 기도를 전수하고, 수련하고, 지도해야 한다. 참여로서의 기도는 성령의 내주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체험하는 것으로서의 신약 성경적 구원론에 기반한 기도이며, 신약성경과 교부신학,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전통 안에서 면면히 계승되어온 교리적 강조점의 실행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참여로서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에서 이끌려지는 교회와 사회를 향한 참여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정의의 실천은 연합과 일치라는 참여에서 시작되고, 다시 다른 또 다른 방향으로의 공공선을 향한 참여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참여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익혀가게 된다. 삶의 위태로움 혹은 불안정성을 깊게 경험하는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여의 기도를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로 향한 깊은 신비적, 영성적, 수덕적 일치를 기도하는 것을 통해 사회와 이웃을 향한 참여를 식별하고, 실행하도록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 4. 영적 전쟁의 기도

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교육이 지도해야 할 세 번째 기도로 영적 전쟁의 기도를 들고자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백신의 확보와 공급을 둘러싼 국가간의 극심한 불균등과 전인류적 재난을 통해 거대한 소득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백신제조 제약회사들의 권력, 그리고 결코 동일한 인간존엄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국가별, 인종별, 민족별 인간들의 불평등성이다. 국가원수들이 국가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하듯 백신제조사

최고경영자와 회담을 갖게 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드러낸 우리 삶의 위태로움이다. 이와 같은 체제의 뜬어진 솔기 사이로 탐욕과 불평등, 생명과 노동보다 상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과 자본의 권력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 기독교 교육기관들은 어떤 기도를 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인가?

로마 가톨릭교회와 같은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아 교황 프란치스코의 지향을 따라 전 세계의 가톨릭교회들이 백신나눔운동을 펼쳤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희년정신을 따라 제3세계의 부채탕감운동을 벌였던 전례를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명징하게 드러낸 불평등에 대해 모든 인간의 절대적 평등이라는 복음정신을 실천하려는 유의미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이었다고 생각한다. 백신나눔운동에 참여한 이들에게 교황 프란치스코가 배포한 성 요셉 상본에는 현대인의 복장을 한 유색인종의 아버지가 어깨 위로 지친 듯 축 늘어진 어린 아들을 지고 걷고 있는 도상이 담겨있다. 마치 어떤 위협에 쫓겨 가족을 이끌고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 새로운 삶의 땅을 찾아 헤매는 난민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회화이다.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 난민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갔던 요셉과 어린이 예수의 모습에 비춰, 성부 하나님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 시대의 세계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사랑을 식별하고, 실천하고,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의도를 지닌 성화상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월터 윈크의 통찰에 의지하여, 체제 앞에서 바치는 기도를 영적 전쟁(spiritual warfare)으로서의 기도라고 명명한다.

월터 윈크는 영적 전쟁의 세계체제 모델을 가지고 논하면서, 지배체제와 영과의 관련을 함께 말한다. 윈크가 영적 전쟁을 지배체제나 세계체제라는 정치사회학적 개념과 구도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기도가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 즉 영적 전쟁의 기도라는 점을 말해준다. 윈크에게 있어서 기도란 지배체제, 제국체제에 대한 영적 전쟁이다. 왜냐하면, 윈크에게 있어 영이란 지배체제 특별히 제국체제라는 세계체제의 뒤에서 체제를 정당화해주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윈크는 이와 같은 그의 영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국이란 '비정상적인' 체제다. 제국은 설득력있는 이념이 영적인 뒷받침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요한이 권세에 의해 밧모섬으로 귀양을 간 것은 당연하다. 제국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비전을 바라보는 예언자는 지배 이념을 받아들이고 단순히 제국을 자신들이 차지하기를 바라는 무장혁명가들보다 훨씬 큰 위협이 된다(윈크c, 106).

신약성경시대로부터 초기 교회가 순교로 맞닥뜨려야 했던 로마제국의 황제숭배에 대해서도 윈크는 황제 개개인의 인격에 대한 숭배가 아니었음을 지적한다. 황제숭배는 황제 안에서 제국을 통치하게 하는 다이몬 즉 영적 실재를 숭배하는 논리적 구조를 담지하고 제국에 강요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로마제국의 황제숭배 강요를 통한 제국의 사상적, 종교적, 영성적 통일을 의도하는 지배체제에 대해 초기 교회는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다는 핵심고백을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저항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수는 지배체제의 영성, 가치, 그리고 조치들에 맞서서 일찍이 저항했던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참을 수 없는 위협을 드러냈기에(윈



크b, 215)“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켰다는 예수부활에 대한 신약성경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이와 같은 체제에 대한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를 포괄하고 있었다고 본다. 윈크의 황제숭배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이 점에서 로마인들은 매우 명석한 모델이 되었다. 그들은 적어도 신약 시대 동안 보좌에 앉은 황제를 경배하지 않고, 오직 황제의 ‘천재성’만을 경배했다. 천재성이라는 이 라틴어는 황제의 지적 능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몬(반신반인)이나 신이나 영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의 천재성은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있는 비인격적인 능력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윈크c, 105).

윈크는 체제 뒤에서 작용하는 영들에 대한 신약성경의 언급들을 분석하면서, 결국 역사는 중보기도자들에게 달렸다고 말한다(윈크c, 102). 윈크는 기도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희망의 정치다. 희망은 미래를 상상하며, 그 미래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그 미래가 열망하는 실재를 만들어 내는 일을 돕는다(윈크c, 104).” 윈크는 중보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자들의 위상을 이렇게 묘사한다. “이렇게 미래를 형성하는 자들은 미래 가운데서 오랜 기간 열망해 온 새로운 현재를 불러내는 중보자들이다. 신약에서 그런 미래의 이름과 구조와 기운은 바로 하나님의 탈지배적 질서 곧 하나님의 통치다(윈크c, 104).”

윈크는 지배체제 안과 뒤에서 체제를 옹다고 해주는 영적 실재에 대한 그의 “정사와 권세”에 관한 이해를 전제하면서, 기도에 관한 실제적인 제안을 한다. 하나는 “신유 치유자들과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과 손을 잡자!(윈크c, 111)”와 “정의, 건강, 사랑의 사회에 대한 비전을 품고 외치는 사람들과 연대하자!(윈크, 111)”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하자는 것이다. 하나님께 명령하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기도는 오순절 교단 전통과 오순절교단 전통이 기존 주류교단에 영향을 끼친 결과로 나타난 카리스마틱-은사주의-성령쇄신 운동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에서 강조되는 특성이다. 윈크는 이와 같은 명령하는 기도가 스토아철학적 신론이 말하는 불변의 영원한 신과 대치되는 성경적 기도임을 성경본문에 대한 석의를 통해 지적한다(윈크c, 106).

그것이 주기도문의 문구가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이유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그것은 명령을 해야 한다. 우리는 명령하도록 명령받았다(윈크c, 111).

윈크는 기도를 사회적 실천과 정치사회적 사변으로 형해화하지 않았다. 윈크는 오순절전통과 은사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기도의 위치를 인정하면서, 기도를 위한 독자적이고 실재적인 의미와 위치를 강조하는 것 같다. 이것은 그의 성장배경에서 그가 경험했던 강렬한 영성적 체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윈크는 기도를 신학적 악령 이해에 기반한 주술적 행위로 오용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윈크는 기도를 악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 변혁을 위한 영적 전쟁으로 자리매김한다. 윈크에게 있어 진정한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는 예수를 통해 드러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아파하심 compassion, 즉 긍휼을 체화하는 행위이며, 이것을 통해 참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를 발생시키는 동인이다(윙크b, 261). 윙크에게 마귀에 대한 믿음은 사회정치적 통찰과 책임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로 이끄는 것이 된다(윙크a, 139).

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교육이 지도해야 할 세 번째 기도가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라고 생각한다. 비참한 대규모 죽음과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삶의 위태로움이 왜 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절규하며 묻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도 잘 주어지지 않는다. 고난의 이유와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삶의 위태로움을 야기한 위기와 고난에 대해 신앙인이 취할 수 있는 구속redemption의 길은 설부른 의미부여와 성급한 원인규명이 아니라 기도와 성찰과 자비의 실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도지도는 평화와 참여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드러내는 체제의 끝모를 자기확대욕구와 탐욕에 맞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현실적 구체화인 긍휼:함께 아파함에 의해 추동되는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다.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는 탐욕과 권력욕을 폭로하고, 모든 사람의 양보할 수 없는 평등한 존엄을 촉구하고, 상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 5. 나오면서: 삶의 위태로움을 함께 기도하게 하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보니 추석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의 누적 사망자수가 470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covid19.who.int, 2021sep22). 확진자수는 2288만 명 선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제기하는 삶의 위태로움은 더해가고, 끝이 보이지 않는데,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워드코로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져만 간다. 역사상 팬데믹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상대적으로 낮은 치사율에도 전례없는 변화를 인류의 역사와 문명, 일상에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지구상 가장 큰 그리스도인 집단의 영성적 수도인 바티칸에서 광장을 텅 비운 채, 교황 프란치스코가 홀로 부활절 전례를 집례하는 것으로 부활절 예배가 드러졌다. 부활절에 텅 빈 광장을 쓸쓸히 걷고 있는 교황의 모습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한국 상황에서도 교회들은 대면예배의 금지와 허용을 오가면서 중계예배와 대면교회활동 대신할 많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콘텐츠 개발을 요구받고,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정치적 극우성향과 연관된 교회세력은 방역에 저항하고, 대면예배와 반정부시위를 주도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지탄과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영업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받으며, 대안없는 인내를 강요받은 자영업자들은 경영난과 생활고 속에서 폐점과 자살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이와 같은 풍경들은 모두 삶의 위태로움을 보여주는 표징들같이 느껴진다.

이유를 물어도 답이 없으신 것같이 느껴지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태로운 삶의 시기에 기독교교육은 어떻게 기도를 지도할 것인가? 답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설부른 원인규명으로 방향없는 회개와 대책없는 심판과 끝모른 종말을 외치는 예언자

나 주변부나 소수자 집단을 희생양으로 지목하는 혐오선동가의 길을 걸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교육이 영성신학이나 그리스도교 영성전통의 도움을 받아 평화, 참여, 영적 전쟁의 기도를 지도하여 삶의 위태로움을 하나님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또 전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평화와 참여,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삶의 위태로움을 기도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서 다가올 여러 인류세에 드리워진 대멸절의 표징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을 식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김승환(2021). 공공성과 공동체성: 후기세속사회의 공공신학과 급진정통주의에 관한 탐구. 기독교문서선교회.
- 문성원(2018). 타자와 욕망: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 읽기와 쓰기. 현암사.
- 이영석(2020). 잠시 멈춘 세계 앞에서: 역사가 이영석의 코로나 시대 성찰 일기. 푸른역사.
- 임명목(2021). K를 다시 생각한다: 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이드웨이.
- 던, 존(2009). 김명복 옮김. 인간은 섬이 아니다: 병의 단계마다 드리는 기도. 나남.
- 라우스, 앤드루(2011). 배성옥 옮김. 서양 신비사상의 기원. 분도.
- 라투르, 브뤼노(2021). 김예령 옮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코로나 사태와 격리가 지구생활자들에게 주는 교훈. 이음.
- 빌링스, 토드(2021). 송용원 옮김. 칼뱅, 참여, 그리고 선물: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레서원.
- 빌링스, 토드(2014). 김요한 옮김. 그리스도와의 연합. 기독교문서선교회.
- 부어스마, 한스(2021). 박세혁 옮김. 천상에 참여하다: 성례전적 존재론 되찾기.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볼프, 미로슬라브(2017). 양혜원 옮김. 인간의 변영: 지구화 시대, 진정한 변영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묻다.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스타크a, 로드니(2020). 손현선 옮김. 기독교의 발흥. 좋은씨앗.
- 스타크b, 로드니(2020). 허성식 옮김.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 새물결플러스.
- 안시, 필립(2021). 홍종락 옮김. 한밤을 걷는 기도: 위기의 동반자가 되어 줄 존 던의 하나님 대면기록. 두란노.
- 윌리엄스, 로완(2021). 김병준 옮김. 어둠 속의 촛불들: 코로나 시대의 신앙, 희망, 그리고 사랑. 비아.
- 윙크a, 윌터(2005). 박만 옮김. 사탄의 가면을 벗겨라: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 한국기독교연구소.
- 윙크b, 윌터(2009). 한성수 옮김.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지배체제 속의 악령들에 대한 분별과 저항. 한국기독교연구소.
- 윙크c, 윌터 외 4인(2014). 한화룡 옮김. 영적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부흥과개혁사.
- 크라이더a, 앨런(2019). 홍현민 역. 초대교회에 길을 묻다. 하늘씨앗.
- 크라이더b, 앨런(2021). 김광남 역.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로마 제국 안에 뿌리 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 비밀.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크라이더c, 앨런(2020). 허현 옮김.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전도. 대장간.
- 홀랜드, 톰(2020). 도미니온: 기독교는 어떻게 서양의 세계관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책과함께.
- 대한성공회(2004). 성공회 기도서.